

<2010년 6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작품을 만드는 자들을 보아라. 그렇게 힘들어도 좋아서 일하고, 즐거워서 일하고, 다 만들어 놓고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서 일하니 쓰러져 가면서라도 몰두하여 하지 않느냐. 너희도 그같이 해야 된다.
2. 힘든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그 힘든 생각이 자기를 지쳐 버리게 하여 그 일보다 마음이 더 힘든 것이다.
3. 자기 일에 만족하며, 누구보다도 좋은 일을 맡아 일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보람 있게 해야 된다.
4. 주님이 주신 일도 때가 있다. 또한 주님이 생각하고 사랑해서 맡긴 일이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 그래야 힘들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다.